

제프리 니하우스 박사, 성경 신학, 5차 세션, 아브라함 언약

© 2024 Jeffrey Niehau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성경 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프리 니하우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5,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글쎄요, 지난번에 말했듯이, 우리는 특별 은혜 프로그램이 시작될 수 있는 맥락으로서 지구를 제공하고 보장하는 아담과 노아의 공통 은혜 언약 패키지에 대한 연구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아브라함 언약으로 시작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될 것처럼, 실제로 다른 특별 은혜 언약도 예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배경부터 시작하는데, 저는 그것을 약혼이라고 특징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상황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숙고하는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주의 가신입니다. 그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아담과 노아의 언약이라는 공통 은혜 패키지에 따라 주의 가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시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등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은 완전히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직 언약을 만들지 않고도 이 일반 은혜의 맥락에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언약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5:18까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기 전에 그와 언약을 맺으셨다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언약을 맺는 것은 국가 간의 조약과 비슷합니다.

미국 대통령과 러시아 대통령이 한 테이블에 앉아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거기에 무역 조약이 있습니다. 각자 가족장정된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는 아마도 금펜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은 마지막 순간에, 아니, 알다시피, 나는 물러설 거야. 나는 더 좋은 거래를 할 수 있어.

나는 이걸 하지 않을 거야. 글썄, 여기 조약이 있어. 다 정해져 있어.

다 갈 준비가 됐어요. 하지만 잘라내지 않아요. 서명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효력이 있는 조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약속과 계획이 있을 수 있지만 조약은 없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약속 과 계획이 있지만 아직 언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이 모든 것은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백성과 그 모든 것을 떠나라. 내가 당신을 큰 나라로 만들 것이다.

나는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나는 너의 이름을 크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히브리어로는 명령형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으로 만들 것이다, 아니면 너는 축복이 될 것이다, 보통 그렇게 번역되듯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야 하듯이, 이제 축복을 받을 아브람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축복받고 행복해지도록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우리가 부를 나누고 축복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직후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 땅은 그와 롯 사이에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는 당신이 고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원하는 곳으로 가세요. 그는 창세기 14장에서 롯을 포로에서 구출합니다. 그러니 그는 축복입니다.

그는 그것을 성취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 축복은 나중에 바울에 의해 이어지고 성령의 약속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것이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모든 민족은 아브라함의 씨, 즉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축복은 물론 그들의 용서와 구원이지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속된 축복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약속된 성령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런 내용을 읽어보면 성령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됩니다. 글썄요, 좋아요, 이건 모두 미래를 내다보는 이야기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자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주리라. 미래에 대한 이 모든 미래지향적인 것들은 약속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약속을 가질 수 있지만 언약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언약은 약속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의 언약 갱신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선지자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에 밝힌 것처럼 그리스도로 밝혀집니다. 하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실현되지 않는 약속을 담고 있으며, 미래의 언약에서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언약의 비준은 창세기 15장과 절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동물들을 자르라고 하셨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불타는 횃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을 읽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것에 대해 다루지 않겠지만, 불타는 횃불, 오븐이라는 용어는 주님께서 때때로 심판을 위해 오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신현입니다. 주님이 조각들 사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후에 그것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 비평으로 돌아선다면,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형식 비평을 이해하는 것은 더러운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문학 분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행해진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글쎄요, 여기서도 우리는 2천년 조약 또는 언약 구조의 요소를 봅니다. 나는 야훼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7절의 제목이며, 언약의 전개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또한 1절에서 선언한 내용이며, 이 구절을 소개합니다. 19세기의 자유주의 학자들은 여전히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글쎄요, 여기에는 두 가지 다른 서론이 있으니 두 가지 다른 출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구절을 완전히 오해한 것이고, 좋은 형식 비평은 그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1절의 나는 야훼로 전체 구절, 전체 사건을 소개합니다. 7절의 나는 야훼로 조약의 제목, 언약 부분입니다. 나는 칼데아인의 우르에서 너희를 데려온 야훼입니다.

완전히 다른 기능입니다. 두 개의 다른 출처가 아니라 두 개의 다른 기능입니다. 그러니 역사적 서론은 거기에 있습니다. 칼데아인의 우르에서 당신을 데려온 사람.

축복합니다. 그는 상속인 과 땅을 약속하고, 이 땅을 소유하도록 허락해 주는 것을 허락이라고 합니다. 허락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에 대해 글을 썼지만, 학계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모세 와인펠트가 고대 근동의 성경에 나오는 허락의 언약이라는 기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와인펠트는 특정 언약을 순수한 직접적인 허락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가리트의 왕, 말하자면 기원전 1200년대, 1100년대 시리아 해안에 있던 도시 국가, 우가리트의 왕은 뛰어난 시민에게 "당신은 뛰어난 시민이었습니다. 당신은 국가를 위해 좋은 일을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여기 보조금이 있습니다.

여기 농장, 면적, 가축이 있습니다. 들어와서 가져가서 즐기세요: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이여.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글썬요, 표면적으로는 그게 그럴 것 같지만,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요.

이 보조금이 양도될 아브람의 후손들은 그저 땅에 들어가서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들어가서 정복해야 합니다. 그들은 일해야 합니다.

그들은 싸워야 합니다. 저는 기원전 1200년경의 투쿨티-니누르타 1세의 연대기에서 아주 잘 들어맞는 유사점을 발견했는데, 그는 창세기 15장의 끝에서 읽은 것과 매우 비슷한 영토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위대한 신들이 정복하라고 준 땅, 경계,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수여이지만 정복할 땅의 수여입니다. 사실 정복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면적인 수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수여 계약이 아닙니다. 정복 위임을 포함한 종주-가신 협정이며, 우리는 이것을 수여라고 부를 것입니다.

언약을 비준하는 엄숙한 의식이 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언약으로 만드는 것은 비준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끝난 후, 우리는 그날 주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당신의 후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읽습니다. 내가 이 땅을 주노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창세기 12:7에서 그가 너희 후손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언약이 끊어졌으므로 그는 너희 후손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또는 “내가 이 땅을 주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요점은 언약이 일단 끊어지면, 그것은 이미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어적 차이가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의 유형학, 동물들 사이의 구절은 어떻습니까? Meredith Kline이 이것을 처음 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완벽하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근동의 맥락에서, 그들은 이런 사례가 많지 않은 듯하지만, 종주권 가신 조약이 체결되었을 때 가신은 이렇게 잘린 조각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상징은, 만약 가신인 제가 조약을 어기면, 이 동물들에게 닥친 것과 같은 운명이 저에게도 닥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종주국은 이 구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종주국은 결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약을 어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고대 근동 연대기를 읽어보면 종주국과 왕은 항상 대단합니다.

그들은 결코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왕의 연대기에는 200년 동안 아시리아의 사냥 전통이 있었는데, “글쎄, 내가 화살을 쏘는 곳마다 무언가를 떨어뜨렸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는 80마리의 사자와 손발로 싸우며 싸웠지만, 항상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역사를 비교하면, 꽤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와 선전의 차이입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진짜를 볼 수 있습니다. 역사, 왕들과 그들의 간통, 우상 숭배, 그리고 그들의 모든 단점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는 조각들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가신이었습니다. 언약을 어기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좋은 예가 마지막 위대한 아시리아 황제 아슈르바니팔에서 발견됩니다. 그는 반항적인 가신, 두 나누 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니네베에서 그들은 그를 가족을 벗기는 테이블에 던져 넣고 어린 양처럼 도살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맹세 의식의 성취입니다. 어린 양과의 비교가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창세기 15장에서 본 것과 같은 의식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찾기 위해 성경 밖으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예레미야 34장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희년 동안 노예, 히브리 형제, 하인을 풀어주지 않음으로써 모세의 언약을 어긴 상황을 보게 됩니다.

글쎄요, 그들은 양심에 찔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옳은 일을 시작하고 법을 따르고 싶어해요. 글쎄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옳은 일을 시작하고 법을 따르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 외에도 그들은 주님과 별도의 언약을 맺어, 좋아요, 이제 우리가 이걸 시작해야겠어요. 우리는 노예들을 풀어줘야 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깨뜨립니다. 그들은 그것을 어기고 그것을 다시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언약, 즉 모세 언약을 어긴 자들은 노예들을 풀어주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 앞에서 세운 언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한 두 번째 언약입니다. 나는 그것을 그들이 쪼개서 그 조각들 사이를 지나가는 송아지처럼 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의식이 무엇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 그리고 누가 그 사이를 지나가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생생한 예입니다. 그 언약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조각들 사이를 걸어갑니다.

그들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그 결과를 겪을 것입니다. 이 경우, 조각들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가신 아브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현의 주님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상징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람아, 너나 네 자손이 언약을 어기면, 나, 주님이 나 자신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자손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한 대로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것은 약속에 따라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주님께서 친히 짊어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는 기꺼이 그것을 짊어지실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짊어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게 상징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저는 그것이 이 배열의 그리스도론적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언급된 동물은 나중에 레위 시스템에서 사용되거나, 사용할 수 있거나, 사용하도록 규정된 동물이라는 점도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읽을 때,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예언을 성취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는 그것에 완벽하게 순종함으로써 그것을 성취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희생이 됨으로써 수반하는 모든 희생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킵니다. 그러니까 산상 설교에서 그것은 심오한 진술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이 모든 것의 진짜 예고를 얻습니다.

이제,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함께 재확인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그에게 먼저 재확인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재확인, 또는 관련된 동사에 대한 우리의 이전 번역의 관점에서, 주님이 그것을 실행하고, 효력을 발휘하기로 선택했을 때,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읽은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나는 확정할 것이다, 또는 나는 실행할 것이다, 또는 나는 우리 사이에 내 언약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많은 민족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여 그 언약의 다른 측면을 식별합니다. 나는 그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실행할 것이다, 7절, 등등.

하지만 우리는 이전에 이야기했던 영원한 것과 관련하여 할례는 이제 이 언약에 들어가는 것을 배제하고 더 이상 언약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그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하며, 우리는 그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짐으로써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예고되거나 희망되었던 모든 것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성취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원한다면 아브라함 언약이 살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브라함 언약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하는 언약으로서 더 이상 지속되지 않습니다. 기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봅시다.

저는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겠지만, 이 형식과 PDF로 여기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재진술의 다른 조항들은 앞서 말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것은 할례이고, 그것은 언약의 표징으로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뿐이며 할례는 그 표시라는 것을 이해하세요. 한 학파의 사상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고등 비평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고등 비평가들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 언약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이 실제로 두 개의 다른 언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이 같은 언약의 두 가지 다른 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J와 E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제사장들의 기록이지만, 그것은 단지 하나의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글썄요, 그들은 왜 그것이 하나뿐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성경은 결코 하나 이상을 언급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것은 항상 아브라함과 맺은 나의 언약이거나, 심지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나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 언약 아래 있었고, 할례의 요구 사항을 포함한 모든 동일한 약속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T. 데스몬드 알렉산더는 그의 책, 낙원에서 약속의 땅으로에서 이 관점이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여기에는 두 가지 다른 언약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15장은 무조건적인 언약인데,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모든 약속을 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이런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건부입니다. 그는 할례를 받아야 하고, 이런 식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아브라함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타당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가 말했듯이, 성경은 아브라함 언약을 두 개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의 언약을 하나의 단일 언약으로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 다른 족장들, 아들들, 아브라함의 자녀들과 재확인된 동일한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할례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신약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신학을 공부하려면 성경 전체를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할례가 두 번째 아브라함 언약의 표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징입니다. 글썄요, 그가 그 믿음을 보인 건 언제였을까요? 창세기 15장에서, 유일무이한 아브라함 언약이 끊어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아브라함 언약의 표징이고, 그가 말한 바를

이해하게 해줍니다. 할례를 받았다면, 우리가 말했듯이, 율법 전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더욱이, 언약을 맺고, 할례를 받고, 그 후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과 같은 추가적인 지시를 주는 이 패턴은 모세 언약에서 따릅니다. 주님께서 시나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31장에서 그분은 표징인 안식일을 주십니다.

나중에 그는 더 많은 지시를 내립니다. 이것은 새 언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언약을 끊으십니다.

나중에 그는 세례의 표징을 줍니다. 그 후에 당신은 서신에 대한 더 많은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이것들에서 따르는 패턴인 듯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언약이 두 개 이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증거를 보고 그것에 따라 사는 문제일 뿐이며, 그것으로 우리만의 구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아브라함 이야기에는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놓고 원한다면 두 개의 언약을 생각해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광범위한 성경적 그림은 그것을 전혀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도 그게 문제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과 이전에 맺었던 언약을 실행하고, 지금은 언약의 표징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책에서 한 언약 관용어에 대한 연구는 한두 명의 다른 학자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전에 한 어떤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언약 관용어, 언약 관련 관용어의 사용에 대한 연구는 노아 언약에서 언급한 예외적인 이유를 제외하고, 이러한 관용어는 성경에서 기존 언약을 재확인하거나 효력을 발생시키는

데만 사용된다는 생각을 뒷받침합니다. 새로운 언약을 만드는 데는 결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핵심적인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왕족의 자손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으로 지정되어 있고, 등등.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진술, 당신의 육신에 있는 언약은 창세기 17장 7절에 있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사실, 히브리어 관용어는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실제로 주님이 지금 그것을 실행하고 있다는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그는 그것을 잘랐습니다. 그것은 법적 실체로 존재했지만, 지금은 표징으로 그것을 실행하고 있으며, 그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하지는 않지만, 아브라함, 당신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보이지 않을 만큼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먼 미래에 있어서 당신은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그것을 실행하고 있고, 그것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말했듯이 할례는 더 이상 언약의 표징으로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언약은 위생적인 목적을 위해 영원할 수 없지만, 그것은 이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희생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있고, 그런 다음 주님은 그를 그로부터 해방시키고 대안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글썄요,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니, 네가 이것을 행하고 네 아들, 네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등등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이전의 약속들을 거의 전부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이것은 주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서 보신 믿음의 위대한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물론, 우리가 지적했듯이, 그 씨앗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엄청난 약속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우리는 바울이 밝힌 그 하나의 단일한 씨, 즉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참된 자녀입니다. 좋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알다시피, 의로움이 하나님과 자신을 평행하게 하는 것이고, 자신의 존재와 행동을 평행하게 하는 것이라면, 믿음의 행위조차도 의로운 행위입니다.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는 또한 계시록 1:5에서 충실한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행위 자체가 의로운 행위이지만 믿음을 행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의롭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완전히 가지고 있지 않은 의로움을 우리에게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 우리는 그 의로움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물론, 여기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유의지와 예정에 대한 의문이 내포되어 있는데, 우리는 새 언약에서 조금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여기서 믿음의 중요성이 있고, 그것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식별하는 것입니다. 글썄요, 주님은 아브라함의 더 직접적인 자손,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 이것을 재확인하셨고, 우리는 이미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재확인에서 내가 맹세를 확정하거나, 말하자면, 너희에게 효력을 부여하여, 내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맹세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은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에서 맹세로 끝났고 구약에서도 종종 그랬습니다. 그래서 맹세는 언약에 대한 일종의 환유법, 전체를 위한 부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와 언약을 확증할 것이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재확인, 내가 그렇게 부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 자료에서 이전에 본 것과 같은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땅, 별과 같은 후손, 그리고 모든 민족이 축복받는다라는 약속. 그렇습니다. 이것을 재확인이라고 부르고 갱신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전 기사에서 저는 이것을 갱신이라고 언급했고, 그런 다음 저는 제 자신을 바로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러한 재진술, 이러한 재확인은 서사 자료에서 완전한 형태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언약 갱신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세부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갱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재확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삭과 야곱은 아브라함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았고, 주님과 함께 걷고 있으며, 그는 단순히 그들에게 이것을 재확인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은혜로운 일입니다. 다시 말해, 그가 야곱에게 말할 때, 그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약속을 반복합니다. 흥미롭게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한 약속은 후손들이 별과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그들은 먼지와 같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일입니다. 야곱은 물론 요셉과 함께 이집트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 당신은 숫자에 대한 무언가에 대한 매우 잘 알려진 두 가지 비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적대적인 군대를 하늘의 별에 비교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숫자에 대한 하늘의 별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이집트인들은 그들을 모래나 먼지와 비교했어요. 그들은 바다에 더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그냥 흥미로운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계통에서는 둘 다 얻게 되죠. 그리고 야곱에서는 먼지와 비교하게 되지만, 어쨌든 요점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했듯이, 이러한 재확인 은 아마도 형식 비판과 사용된 동사 때문에 언약 갱신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동사는 성경에서 새로운, 심지어 갱신 유형의 언약을 만드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글썬요, 여기에는 세 가지 다른 언약을 암시하는 하나의 언약이 있습니다.

모세 언약은 자손에 대한 약속으로 암시됩니다. 신명기에서 우리는 이 약속이 적어도 어느 정도는 성취되었다고 읽습니다. 모세는 주 하나님께서 너희의 수를 늘려 주셔서 오늘날 너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글썬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그것이 무엇을 암시하는지 정확히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탈출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또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후손은 자기들의 것이 아닌 나라로 내려갈 것이다. 그들은 400년 동안 노예가 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나라를 벌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네 후손은 큰 소유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과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이 정확히 이렇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는 언약을 기억하시지만, 다시 말해서 그가 그것을 잊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기억하지만, 그는 이제 그것에 적극적으로 주의를 돌립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인의 멍에에서 끌어내어, 너희를 그들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그래서 그는 이 약속을 성취합니다.

시편 105편은 훨씬 후에 이것을 숙고하면서, 그는 그의 종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룩한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그의 백성을 기쁨으로 이끌어냈고

, 그의 택함받은 자를 기쁨의 함성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에서 예시된 탈출, 창세기 15장은 모자이크 아래에서 성취됩니다.

정복은 또한 그가 사람들을 땅으로 다시 데려오고 필요한 전투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고되었습니다. 정복은 창세기 15장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복은 그 약속을 성취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고, 출애굽기 6장에서 주님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는 이렇게 하며, 시편 105편도 이에 대해 반영합니다. 그는 자신의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맹세를 기억합니다. 다시 말해 언약에 대한 환유법입니다. 그는 이삭에게 맹세했고, 야곱에게 법령으로 확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언약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오래 지속되는 언약으로서 이스라엘 전체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원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에게, 나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민족들의 땅을 주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법을 따르기 위해 수고한 것을 상속받았다.

신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신은 그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여, 솔직히 말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고, 당신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이 일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줄게요. 아니, 신명기 4장에서 읽은 대로, 그는 그들이 백성 중에서 가장 작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그들을 택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축복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것이 여기의 의도입니다. 그는 그들이 그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을 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했듯이, 다른 나라들은 알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 사람을 다른 나라 가운데서 데려내어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법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땅에 증인을 두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매우 불완전한 증인 집단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수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은 모세 언약의 전제 조건으로 한 단계에서 성취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모세 언약을 맺을 수 있는 백성이 있습니다 .

아브라함이 약속한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은 모세 언약의 전제 조건으로도 성취됩니다. 그는 언약을 하기 전에 그들을 속박에서 인도해 냅니다. 그런 다음 모세 언약 하에서 땅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글쎄요, 다윗 언약은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 언약에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 거기서 주님이, 말하자면, 표징을 주시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시는 언약입니다. 내가 너를 매우 번성하게 하리라. 민족과 왕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또한, 내 생각에는 암시가 있고, 물론 왕들이 나올 것이다.

사울이 있지만, 다윗과 다윗 언약을 통한 왕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암시입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솔로몬 성전을 예고하거나 암시하는 흥미로운 진술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아브라함을 모리아로 보내셨고, 그곳이 그가 이삭을 제물로 바칠 산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물론 주께서 그를 그 산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덩불에 뿔이 걸린 숫양을 대신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장소를 주께서 마련해 주실 곳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주의 산에서 마련해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잠시 후에 그것이 어떻게 다르게 번역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꽤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먼저 주목할 점은, 그 이름, 여호와-이레 또는 히브리어로 야훼-이레는 신성한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소 이름입니다. 그는 그 장소를 불렀고, 그 장소의 이름을 여호와-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신의 이름이 적힌 플래카드를 본 여러 교회에 갔는데, 그중 하나가 여호와-이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 히브리어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읽는 것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주께서 마련하실 곳을 불렀습니다. 당신들은 학자들이 있는데, 저는 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겠지만, 이것이 신의 이름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장소의 이름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공급하실 것이라고 불립니다.

문자 그대로 주님께서 보시리라 말씀합니다. 더 완전한 관용어로는 주님께서 보시고 공급하신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주님의 산에서 제공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동사의 수동태는 보다입니다. 주님의 산에서 보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술들의 번역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산에서 주님을 볼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산에서, 그것이 제공될 것이 아니라, 그가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 동사, 그것이 제공될 것이라는 것은 보통 번역되는 대로, 실제로 주님의 나타나심을 위해 신현에서 항상 사용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번역은 아브라함이 그 장소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 여기서 주님을 볼 것이라는 것, 그래서 주님의 산에서 그가 보일 것이라는 것, 또는 그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글썬요, 그 생각을 뒷받침할 만한 후대의 증거가 있을까요? 역대기하 3:1에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22장의 진술을 다르게 번역한다면, 아브라함이 그 장소의 이름을 지었고, 주님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산에 나타나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주님께서 그 산에서 다윗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읽습니다. 제 생각에는 잘 들어맞습니다.

실행 가능한 번역입니다. 흥미롭죠. 이런 문제에서 저는 둘 다 실행 가능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의 번역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때때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무언가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 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아마도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산은 모세 언약에 따라 희생의 장소가 됩니다.

신명기 12:5에 따르면, 당신은 당신의 희생을 당신의 지파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거하시기로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즉, 그 당시에, 주님께서 천막을 치실 곳 어디든지 말입니다. 우리는 엘리 시대에는 실로에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결국 주님의 거처는 모리아 산의 예루살렘, 말하자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 사건에는 그리스도론적 측면이 있습니다. 제물로 바쳐진 그의 아들은 매우 그리스도론적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바칩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한 대체 희생이 있고, 그것도 그리스도론적입니다. 그래서 환상적인 에피소드입니다.

흥미롭게도, 저는 주님이, 이게 엄청난 시련처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실제로 그를 놀라울 정도로 특권적인 위치에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 자신이 처한 것과 같은 구조의 위치에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희생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조금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 많이 다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가 호세아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와 결혼하게 한 것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음란한 이스라엘과 결혼하신 것처럼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를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위치와 평행한 위치에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큰 특권이지만, 제 생각에는 인생에서 매우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함축된 새로운 언약은 창세기 15장의 맹세 구절이라고 불리는 것, 외아들의 제물, 숫양의 대속 제물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살펴보면, 제가 주요 패러다임이라고 부르는 것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인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영으로 일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베드로후서 1장을 논의에 가져왔는데, 그것은 선지자들이 영에 이끌렸고 아브라함은 선지자였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20장 7절은 그를 선지자로 식별하는데, 이는 성경에서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입니다. 그는 적들과 전쟁을 벌여 물리치고, 창세기 14 장에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나가서 친척인 롯과 그의 사람들을 구출합니다.

그는 그때 언약을 세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적어도 형식적으로, 그리고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물론, 다시 말하지만, 아직 성전은 없지만, 그것을 위한 사람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아직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그러면 주님은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미 이것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듯이, 그는 그것을 이집트에서 구출하기 위한 동기로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그 구절들을 읽었고, 그들에게 땅을 주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는 또한, 예언된 대로, 그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즉, 그들을 미래의 유배에서 구출하기 위한 이유로서 말입니다.

레위기 26장은 이것을 예언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와 조상의 죄를 고백하면, 할례받지 않은 마음이 겸손해지고 죄값을 치르면, 나는 야곱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가 모세 언약을 근거로 그들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는 더 큰 구원 프로그램을 예고하는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를 위해 그는 그들을 유배에서 구원합니다. 물론 그들이 깨뜨린 언약은 그들을 유배로 이끈 모세 언약이었고, 그것은 또한 계속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에서 아브라함 언약의 포괄적인 구원적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가 이것의 얼마나 많은 부분을 자세히 읽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은 분명히 모세 언약을 언급하고 있으며, 그것이 그들이 여기서 깨뜨린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모세의 언약 표징으로 성취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모세의 언약 표징은 안식일입니다. 이는 모세의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의 갱신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조건과 약관을 가진 다른 언약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성합니다. 그것은 성전의 존재를 가지고 있으며, 죄를 위해 준비된 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저는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05편은 이 언약을 성찰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미 이 구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초반에, 우리는 그가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이것을 입증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체적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개인으로서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에게 주어진 이름인데, 그가 하나님과 씨름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5편 8절에서 11절까지는 주님께서 과거에 이것을 입증하셨음을 말해줍니다. 그는 이 언약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는 그것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는 족장들과 함께 그것을 계속했고, 그들이 낯선 사람이고 수가 적었을 때 그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땅을 떠돌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그들을 압제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 그는 왕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그의 선지자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우연히도, 그 구절은 족장들이 선지자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듯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시편 105편과 창세기에서도 족장들과 함께 이것을 계속해 나가고 계셨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세 언약이 할례를 요구했다는 사실에서 아브라함 언약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일 뿐입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 당신은 두 가지 언약의 표징을 가졌습니다. 할례는 당신이 아브라함 언약의 일원임을 의미했고, 당신은 안식일을 지킬 것이었는데, 이는 모세 언약에 대한 당신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이것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둘 다 성취하실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 언약과 율법, 모세 언약 사이에 이런 구별을 하는데, 이것은 중요한 구별입니다. 그는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이 단수라고 지적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430년 후에 도입된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세우신 언약을 폐기하지 않고, 따라서 약속을 폐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속 재산이 율법에 달려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모세의 언약은 그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있죠. 계속되고 있습니다. 율법도 주어졌고, 둘 다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살펴볼 때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여기서 율법과 십일조에 대해 말하는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하마스, 법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왜 법이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법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육자로 주어졌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지혜롭게 이스라엘이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그들을 대신하여 그것을 이룰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율법 위에, 어떤 의미에서 역사를 따라 여행하는 것은 아브라함 언약이었고,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영의 약속을 수반하는 것이고, 그것은 실제로 율법보다 훨씬 더 나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이 새로운 언약을 예고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표징과 그 중요성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표징은 할례입니다.

모세 언약의 표징은 안식일입니다.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이해한다면,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새 언약의 표징은 세례입니다. 언약 표징의 변화는 새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과 사실상 모세 언약을 대체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그 둘 모두를 대체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사역이 옛 언약의 사역을 대체하고 그보다 우월한 것처럼요.

그리고 여기서 새 언약을 조금 앞서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는 새 언약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고, 옛 언약을 언급하지 않고는 새 언약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사역은 그들의 사역보다 우월한데, 그의 중보자가 받은 언약이 옛 언약보다 우월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더 나은 약속, 즉 아브라함 언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첫 번째 언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다른 언약을 찾을 자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글쎄요, 여기서 우리가 곧 말할 내용을 조금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새 언약을 볼 때, 옛 언약에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한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잘못된 것은 없었지만, 이런 면에서는 부족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살아야 할 기준을 제시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 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실패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에스겔 36:27에 약속된 것이었고, 옛 언약 하에서는 얻지 못했던 것, 즉 주님께서 그의 영을 그들 안에 두시고 그들이 그의 법과 법령을 따르도록 움직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들은 그것을 할 수 없었고, 그들은 하지 않았고,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패는 교육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 율법을 성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의 약속된 씨이고, 그와 함께 에스겔이 에스겔 36:27에서 예언한 영의 약속이 옵니다. 내가 내 영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이 나에게 순종하도록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그것에 대한 교육적이었고, 사람들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 왜 세상에서 당신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성취할 수 없는 율법을 주셨고, 그들이 그것을 성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그것을 성취하지 못했을 때 잔혹하고 끔찍한 유배로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저는 아무도 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다. 우리는 다르게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르게 했을 것 같아요. 가끔은, 봐요, 제가 신이었고, 제가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할 거라는 걸 알았고, 그 결과 인류 대부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다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저는 다르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가 옳았다는 걸 지금보다 더 잘 알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말했듯이, 온 땅의 심판자가 옳은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답은 예, 그는 옳은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가 은혜로우시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만큼은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이 그가 새 언약으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오래된 모세 언약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이 예레미야 33장에서 인용한 새 언약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입니다.

히브리어 관용어는 잘려져 있으므로 이것은 별개의 언약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갱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입니다.

창세기나 에스겔 36, 27장, 신명기 3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는 것을 말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사악함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부름으로써 그는 첫 번째 언약을 쓸모없게 만들었고, 쓸모없고 낡아빠진 것은 곧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언급했듯이, 언약을 끊는다는 것은 언약을 갱신하거나 언약을 끊는데 사용되는 관용어임을 나타낸다.

그것은 단순히 옛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옛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바로 여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기 위해 손을 잡았을 때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갱신 언약이 갱신하는 언약과 다르다고는 결코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점은 언약을 갱신하고, 변경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약간 수정하면서 다시 진술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모압 언약을 시나이 언약과 비교하면 정확히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은 같은 십계명을 얻습니다. 당신은 많은 같은 법을 얻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언약입니다. 당신은 같은 신권을 가지고 있고, 같은 희생 제도가 암시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새 언약은 완전히 다른 거래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희생이 있습니다. 많은 히브리인들이 이것에 헌신하듯이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위해 주님께 황소와 염소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희생이 있고 그게 다입니다.

신권이 바뀌면 법도 바뀝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제사장을 두었습니다. 옛 신권, 옛 법은 끝났습니다. 그러니 갱신이 아닙니다.

갱신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저는 그들이 고대 세계나 심지어 성경에서 갱신이 무엇이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언약을 맺는다는 관용어가 갱신 언약의 비준에 사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고, 그것은 신명기에서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당신은 이것이 주님께서 회중의 산에서 맺으신 언약에 더하여 그들과 맺으신 언약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제 생각에는, 당신은 시나이 언약을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는 이것을 끊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갱신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거기서 일어난 일은 그가 시나이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 전망에 주저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

정탐꾼들은 이 멋진 과일을 가져왔지만, 거인들과 하늘까지 닿은 성벽에 대한 보고도 있었고, 사람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아? 그들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고,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를 헤매게 될 것입니다. 시체가 거기에 떨어지고, 그들의 아이들이 자라서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일어났습니다

글쎄요, 고대 세계에서 가신이 죽었을 때, 종주권자는 조약을 갱신했습니다. 계속할까요? 가신의 후계자, 죽은 가신의 아들과 조약을

갱신할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는 죽은 가신의 자녀인 새로운 세대와 시나이 언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갱신입니다. 여기서는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사가 언약을 맺는 데 사용되지만, 예레미야서에 예언된 새 언약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언약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즉, 같은 동사이지만 갱신 언약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모세의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유감의 갱신입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저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미 지나갔으므로 그것도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갱신 언약은 갱신한 언약을 갱신하고 계속합니다. 다른 언약 표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전 언약의 표징은 폐지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바울은 또한 아브라함 언약을 약속 또는 약속들로 특징지었습니다. 그는 흥미로운 구절을 사용하는데, 저는 그것이 에베소서 2장에서 매우 계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전에는 출생으로 이방인이었고 스스로를 할레자라 부르는 자들로부터 할레받지 않은 자라고 불렸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당시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의 시민권에서 제외되었으며, 약속의 언약에 대해 이방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한때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 왔습니다. 약속의 언약, 바울이 여기에서 사용한 약속은 기본적으로 아브라함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 언약이 다른 언약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에 포함된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것들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에서 나왔고,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에서 나왔고, 물론 새 언약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속의 언약입니다. 이 이교도들은 그 언약에 외국인이었지만, 이제 새 언약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으므로 그 모든 것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구속 프로그램은 약속의 언약으로 구성되었지만, 물론 지금은 우리가 속한 새 언약만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을 마무리하기 위해 읽은 것처럼, 갈라디아서 3:15에서 25까지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 언약은 새 언약까지 계속됩니다. 새 언약은 그것을 성취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아브라함 언약에 새겨졌습니다. 이제 그것은 새 언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성령이 포함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역동적인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요한은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그가 기대했던 것, 그리고 그가 말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8:56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보는 것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분명히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꽤 많이 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본 간결한 보고의 또 다른 측면일 뿐이며, 우리는 다른 사례도 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세 언약, 그 요구 사항, 그리고 그 아래에서 일어나는 정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성경 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프리 니하우스 박사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세션 5, 아브라함 언약입니다.